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주)우리리서치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정보통신 담당
(주)우리리서치 유봉환 기획실장 010-3304-5454
발 신 참여연대 안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심현덕 간사 (010-9323-9863)
제 목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및 분석 보도자료
날 짜 2015.06.17.(수)(여론조사 결과 포함하여 총 19p)

보 도 자 료

국민 77.2%, 데이터요금제 통신비 인하 효과 없거나 미미, 또는 오를 것이라 판단
데이터요금제 변경은 시장 상황 보고 결정 할 것(51.5%), 요금제 개선 및 추가 인하 필요(68.9%)
통신당국은 데이터요금제에 대한 보완책과 요금인하 추진해야, 기본료폐지 및 데이터 제공 확대

1. 2015년 6월 7일 참여연대·(주)우리리서치가 진행한 데이터요금제에 관한 여론조사에서(우리리서치와 참여연대는 부정기적으로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한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참여연대가 조사를 의뢰하고 우리리서치가 여론조사를 시행), 우리 국민들 10명 중 8명꼴로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통신비 인하 효과가 없거나 있어도 미미하고, 오히려 오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역시 70%에 가까운 국민들은 데이터 요금제의 개선 및 추가 인하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정부 당국과 통신재벌 3사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인해 ‘대단한 인하 효과가 있다’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런 점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통신 이용자들은 이용 패턴은 이미 데이터 중심으로 바뀌었는데, 음성·문자가 무제한 제공된다고 해서(참고로, 지능망 음성 통화, 영상 통화 등은 별도 과금 되거나 무제한이 아님) 통신요금이 인하되는 것은 아니라는 참여연대와 통신공공성포럼 등의 지적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 2015년 5월 8일 KT를 시작으로 통신3사가 음성통화 무제한 제공하고 데이터량에 따라 통신요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요금제, 즉 데이터요금제를 출시하였다. 데이터요금제 가입자가 곧 3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데에는 성공했다 할 것이다. 이번 여론 조사에서도, “최근 통신3사가 음성통화는 무제한 사용 가능하고 데이터의 사용량에 따라 통신비를 차등 적용하는 데이터중심 요금제를 내놓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데이터중심 요금제에 대해 알고계십니까?”라는 질문에서 통신소비자들은 잘 안다

(24.5%), 대강 안다(53.5%)로 응답하여, 전혀 모른다(22.1%)를 크게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데이터요금제가 출시된 지 한 달 만에(6.7일 여론조사 시점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빠르게 인지도를 높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통신재벌 3사가 공격적인 마케팅과 적극적인 광고를 진행한 것과도 연관이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과도한 통신비 고통과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데이터요금제가 통신비를 인하시킬 수 있을 것인지 주목해서 봤다는 측면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최근 통신3사가 데이터중심 요금제를 내놓았으나,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데이터중심 요금제로 변경할 의향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서는 우리 국민들은 이미 변경했거나 곧 변경할 예정(18.9%), 시장 상황을 좀 더 보고 차분히 결정(51.5%), 문제가 있으므로 변경할 생각 없음(18.8%), 잘 모름(10.7%) 등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요금제의 요금 인하 효과에 대한 논란이 뜨겁고, 또 이용 패턴에 따라서는 요금이 인상될 수도 있다는 점들이 지적되면서 70.3%에 달하는 국민들이 변경할 생각이 없거나 관망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추정된다.

4. “통신3사는 데이터중심 요금제로 변경하면 요금인하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22.7%), 효과 미미(31.6%), 효과 없음(22.9%)로 응답(77.2%)하여, 서두에서 지적했듯이 우리 국민들은 데이터요금제로 인한 통신요금 효과가 없거나 있어도 미미하고, 오히려 오를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10.5%에 불과했다. 1인당 음성통화량은 2010년 말 200분 내외에서 현재 180분 이하로 감소추세에 접어들고 있다. 통신 소비자의 이용 형태는 음성통화에서 데이터 사용으로 이미 재편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성 통화를 무제한으로 제공한다면 하더라도 데이터 제공량이 이에 뒷받침 되지 않으면 통신비 인하에 별 효과가 없다고 우리 국민들은 판단한 것이다.

※ 참조 : 데이터요금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발표 자료 별첨)

※ 참조 2 : 연도별 문자, 음성 통화 사용량 추이 및 데이터 사용량 추이(다음 장 표)

< 그림 1 > 연도별 음성·문자 건수 및 데이터 사용량 추이



<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출처 : 2015.05.19. 경향신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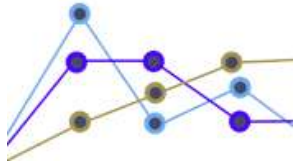
5. “데이터중심 요금제에 대한 개선 및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개선과 추가 인하가 꼭 필요하다”의견이 68.9%, “향후 추이를 보고나서 개선을 추진해도 된다”의견이 18.1%, “최근의 데이터중심요금제이면 충분하다” 의견이 2.7% “잘 모름”의견이 10.2%로 나타났다. 국민 10명중 7명 꼴로 현재의 데이터요금제로는 부족하고 개선과 보완이 있어야 한다는 답한 것이다. 최저요금이라는 32,900원 요금도 결코 작은 부담이 아니며, 그 경우라도 지능망 서비스 및 부가 통신 등의 경우는 추가로 과금이 될 수 있고, 또 데이터를 조금만 더 사용하면 과금이 추가로 더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데이터요금제의 개선 및 보완, 추가적인 요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알뜰폰도 음성통화를 무제한 제공하는 1만원대 요금제 출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통신 3사로부터 통신망을 임대해서 판매하는 알뜰폰도 1만원대 무제한 통화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데,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고 통신망을 소유하고 있는 통신 3사가 (부가세 포함하여) 32,900원 요금제에서야 무제한 통화를 제공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드시 기본료 폐지 또는 대폭 인하(순차적 폐지), 저가 요금제에서 데이터 제공

량 확대 등의 후속 및 보완조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6.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국민들은 데이터요금제 자체로 통신비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 않다. 2014년 4월 LTE 이용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3.4GB이다. 그리고 해마다 약 50%의 데이터 사용량 증가를 보이고 있다. 통신재벌 3사가 저가 요금정책 더욱 많은 데이터 사용량을 제공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통신 기본권, 통신 공공성이 중요하다 하면서 데이터 사용에서까지 극심한 차별과 양극화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 또, 11,000원 가량의 기본요금이 이번 데이터요금제에도 모두 숨겨져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과도하면서도 부당한 기본요금 문제가 해결된다면 데이터요금제의 추가 인하가 가능하고, 통신 복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증가할 것이다. 끝.

■ **붙임 : 데이터 요금제 여론조사 보고서(2015.06.7일 여론조사 시행, 6.10일 우리리서치 분석)**

- 참고 : 여론조사는 6.7일 시행했고, 결과 보고서는 6.10일 완성됐지만 메르스 사태 등을 감안하여 6.17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사회 주요현안 국민 여론조사

.....

조사보고서

2015.6.10

.....

제 1 부 조사개요

1. 조사설계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19세이상 성인남여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전화조사(ARS)
표본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무선(5:5) 전화 임의번호 무작위 추출(RDD)
유효표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0명(유선 500명, 무선 500명)
표본오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pm 3.1\%P$
조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 6. 7(1일간)
조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우리리서치(참여연대 조사 의뢰)
주요설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중심 요금제 인지 데이터중심 요금제로 변경의향 데이터중심 요금제 변경 통신인하 효과 데이터중심 요금제 대한 개선 및 추가인하 필요성

2. 응답자 특성

		사례수	비율(%)
전 체		1,000	100.0
연 령	19세~20대	176	17.6
	30대	190	19.0
	40대	217	21.7
	50대	198	19.8
	60대이상	219	21.9
성 별	남 성	500	50.0
	여 성	500	50.0
지 역	서 울	203	20.3
	경기/인천	293	29.3
	대전/충청	104	10.4
	광주/전라	103	10.3
	부산/울산/경남	157	15.7
	대구/경북	102	10.2
	강원/제주	38	3.8
직 업	자영업	180	18.0
	화이트칼러	193	19.3
	블루칼러	70	7.0
	농림어업	43	4.3
	주 부	161	16.1
	학 생	45	4.5
	기 타	159	15.9
	무응답	151	15.1
계 층	상 층	24	2.4
	중 간	435	43.5
	하 층	386	38.6
	무응답	154	15.4

제 2 부 조사요약

데이터중심
요금제 인지

안다 78.0% > 모른다 22.1%

데이터중심 요금제
변경의향

시장상황 보고 51.5% > 변경예정 18.9% > 변경안함 18.8%

데이터중심 요금제
변경 통신인하 효과

효과미미 31.6% > 효과없음 22.9% > 요금인상 22.7%

요금제 개선 및
추가인하 필요성

추가인하 필요 68.9% > 향후 개선 18.1%

제 3 부 조사결과

1 데이터중심 요금제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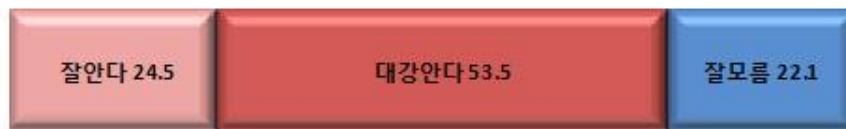
문) 최근 통신3사가 음성통화는 무제한 사용 가능하고 데이터의 사용량에 따라 통신비를 차등 적용하는 데이터중심 요금제를 내놓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데이터중심 요금제에 대해 알고계십니까?

안다 78.0% (잘안다 24.5% + 대강안다 53.5%) > 전혀모른다 22.1%

- ❖ 최근 통신3사가 데이터의 사용량에 따라 통신비를 차등 적용하는 데이터중심 요금제 대해 아는지 묻은 결과, '안다'는 응답이 78.0로 '잘 안다'는 24.5%, '대강안다'는 53.5%임. '전혀모른다'는 응답은 22.1%를 나타냄

[데이터중심 요금제 인지]

(단위=%)



		사례수	안다	잘안다		잘모름
				잘안다	대강안다	
전 체		(1000)	78.0	24.5	53.5	22.1
연령	19세~20대	(176)	90.0	38.1	51.9	10.0
	30대	(190)	86.6	39.8	46.8	13.4
	40대	(217)	85.7	23.2	62.5	14.2
	50대	(198)	76.6	18.1	58.5	23.4
	60대이상	(219)	54.2	7.3	46.9	45.8
성별	남 성	(500)	78.7	25.2	53.5	21.2
	여 성	(500)	77.1	23.7	53.4	22.9
지역	서 울	(203)	80.4	28.1	52.3	19.6
	경기/인천	(293)	82.0	25.5	56.5	18.0
	대전/충청	(104)	77.5	28.7	48.8	22.5
	광주/전라	(103)	67.3	14.8	52.5	32.7
	부/울/경남	(157)	72.9	24.7	48.2	27.1
	대구/경북	(102)	81.3	22.0	59.3	18.7
	강원/제주	(38)	75.0	17.7	57.3	25.0

2 데이터중심 요금제 변경의향

문) 최근 통신3사가 데이터중심 요금제를 내놓았으나,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데이터중심 요금제로 변경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상황봐서 51.5% > **변경함 18.9%** > **변경안함 18.8%** [잘 모름 10.7%]

- ❖ 최근 통신3사가 내놓은 데이터중심 요금제 변경의향에 대해 '시장 상황을 좀 더 보고 차분히 결정할 예정이다'는 응답이 51.5%로 전체 응답자 중 반 이상 응답하였고, '이미 변경했거나 곧 변경할 예정이다'는 응답은 18.9%, '문제가 있으므로 변경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18.8%로 나타남. '잘모름'은 10.7%임

[변경의향]

(단위=%)



		사례수	변경함	상황봐서	변경안함	잘모름
전 체		(1000)	18.9	51.5	18.8	10.7
연령	19세~20대	(176)	19.4	48.5	22.9	9.2
	30대	(190)	27.8	48.5	17.9	5.8
	40대	(217)	17.3	53.8	21.9	7.0
	50대	(198)	19.7	54.7	17.2	8.4
	60대이상	(219)	11.7	51.4	14.9	22.0
성별	남 성	(500)	16.9	52.2	19.4	11.5
	여 성	(500)	20.9	50.8	18.3	9.9
지역	서 울	(203)	18.4	53.0	21.6	7.0
	경기/인천	(293)	18.4	55.8	15.3	10.5
	대전/충청	(104)	23.3	55.5	13.5	7.7
	광주/전라	(103)	16.8	46.8	19.3	17.1
	부/울/경남	(157)	24.5	38.6	22.7	14.3
	대구/경북	(102)	13.6	59.6	16.9	9.9
	강원/제주	(38)	10.0	44.8	33.8	11.5

3 데이터중심 요금제 변경 통신비 인하

문) 통신3사는 데이터중심 요금제로 변경하면 요금인하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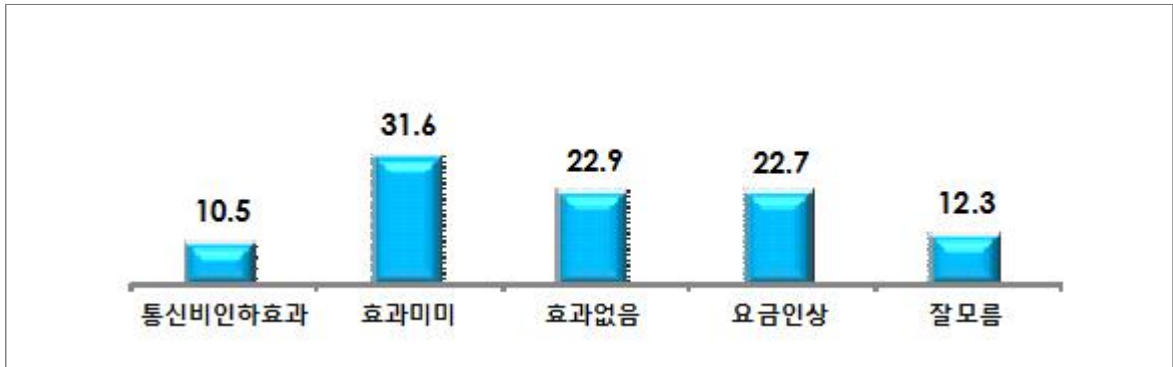
효과미미 31.6% > 효과없음 22.9% > 요금인상 22.7% > 인하효과 10.5%

❖ 데이터중심 요금제로 변경하면 효과가 크다는 통신3사의 주장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시민단체 의견에 대해 '인하 효과가 있지만 미미하다'는

응답이 31.6%로 가장 높고, '이전과 비교해 인하 효과 없을 것이다'는 응답이 22.9%, '데이터를 많이 쓰는 추세라 오히려 요금이 인상될 우려가 있다'는 응답이 22.7%, '음성통화 사용이 많기 때문에 통신비 인하 효과가 상당할 것이다'는 응답이 10.5%로 나타남. '잘모름'은 12.3%임

[통신비 인하효과]

(단위=%)



		사례수	통신비인하 효과	효과미미	효과없음	요금인상	잘모름
전 체		(1000)	10.5	31.6	22.9	22.7	12.3
연령	19세~20대	(176)	12.7	23.0	13.5	42.0	8.8
	30대	(190)	8.9	32.7	20.9	32.3	5.1
	40대	(217)	7.2	35.4	31.8	19.6	6.0
	50대	(198)	13.0	33.9	24.5	15.8	12.8
	60대이상	(219)	11.0	31.6	22.0	8.1	27.3
성별	남 성	(500)	9.7	28.8	25.1	24.4	12.0
	여 성	(500)	11.2	34.4	20.7	20.9	12.7
지역	서 울	(203)	11.5	26.5	23.6	29.8	8.7
	경기/인천	(293)	12.2	34.2	19.4	19.4	14.8
	대전/충청	(104)	12.1	40.8	19.8	20.7	6.6
	광주/전라	(103)	6.0	25.5	24.2	29.0	15.3
	부/울/경남	(157)	6.7	36.0	22.7	19.0	15.5
	대구/경북	(102)	13.6	20.2	36.3	20.4	9.4
	강원/제주	(38)	6.4	42.5	16.5	19.9	14.7

4 요금제 개선 및 추가인하 필요성

문) 데이터중심 요금제에 대한 개선 및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가인하 필요 68.9% > 향후 개선 18.1% > 현 제도 만족 2.7%

❖ 데이터중심요금제 대한 개선 및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개선

과 추가 인하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은 68.9%로 가장 높았고, '향후 추이를 보고나서 개선을 추진해도 된다'는 응답이 18.1%, '최근의 데이터중심요금제이면 충분하다'는 응답이 2.7%로 나타남. '잘모름'은 10.2%임

[요금제 개선]

(단위=%)



		사례수	추가인하 필요	향후 개선	현재 제도 만족	잘모름
전 체		(1000)	68.9	18.1	2.7	10.2
연령	19세~20대	(176)	72.9	20.1		7.0
	30대	(190)	76.7	17.1	1.9	4.3
	40대	(217)	82.1	9.3	1.5	7.1
	50대	(198)	67.6	19.7	4.0	8.6
	60대이상	(219)	47.3	24.8	5.4	22.4
성별	남 성	(500)	73.1	15.9	1.7	9.2
	여 성	(500)	64.8	20.3	3.6	11.2
지역	서 울	(203)	74.9	13.8	3.2	8.0
	경기/인천	(293)	66.3	20.2	1.9	11.6
	대전/충청	(104)	73.9	16.2		9.9
	광주/전라	(103)	63.4	17.8	4.4	14.4
	부/울/경남	(157)	65.9	19.3	4.1	10.6
	대구/경북	(102)	70.3	20.3	3.7	5.6
	강원/제주	(38)	67.8	21.1		11.1

제 4 부 통계표

【 데이터중심 요금제 인지 】

		사례수		잘안다	대강안다	전혀모른다
		빈도	%	%	%	%
■전 체 ■		1000	100.0	24.5	53.5	22.1
연 령	20 대	176	17.6	38.1	51.9	10.0
	30 대	190	19.0	39.8	46.8	13.4
	40 대	217	21.7	23.2	62.5	14.2
	50 대	198	19.8	18.1	58.5	23.4
	60이상	219	21.9	7.3	46.9	45.8
성 별	남 성	500	50.0	25.2	53.5	21.2
	여 성	500	50.0	23.7	53.4	22.9
지 역	서울	203	20.3	28.1	52.3	19.6
	경기/인천	293	29.3	25.5	56.5	18.0
	대전/충청	104	10.4	28.7	48.8	22.5
	광주/전라	103	10.3	14.8	52.5	32.7
	부/울/경남	157	15.7	24.7	48.2	27.1
	대구/경북	102	10.2	22.0	59.3	18.7
	강원/제주	38	3.8	17.7	57.3	25.0
직 업	자영업	180	18.0	24.7	53.2	22.1
	화이트칼러	193	19.3	39.7	51.7	8.6
	블루칼러	70	7.0	32.1	53.0	14.9
	농림어업	43	4.3	10.2	61.3	28.5
	주 부	161	16.1	17.3	53.5	29.2
	학 생	45	4.5	44.9	46.3	8.8
	기 타	159	15.9	16.7	57.9	25.4
계 층	상 층	24	2.4	27.3	68.0	4.7
	중 간	435	43.5	25.4	57.1	17.5
	하 층	386	38.6	26.7	49.3	24.0

【 데이터중심 요금제 변경의향 】

		사례수		변경함	상황봐서	변경안함	잘모름
		빈도	%	%	%	%	%
■전 체 ■		1000	100.0	18.9	51.5	18.8	10.7
연 령	20 대	176	17.6	19.4	48.5	22.9	9.2
	30 대	190	19.0	27.8	48.5	17.9	5.8
	40 대	217	21.7	17.3	53.8	21.9	7.0
	50 대	198	19.8	19.7	54.7	17.2	8.4
	60이상	219	21.9	11.7	51.4	14.9	22.0
성 별	남 성	500	50.0	16.9	52.2	19.4	11.5
	여 성	500	50.0	20.9	50.8	18.3	9.9
지 역	서울	203	20.3	18.4	53.0	21.6	7.0
	경기/인천	293	29.3	18.4	55.8	15.3	10.5
	대전/충청	104	10.4	23.3	55.5	13.5	7.7
	광주/전라	103	10.3	16.8	46.8	19.3	17.1
	부/울/경남	157	15.7	24.5	38.6	22.7	14.3
	대구/경북	102	10.2	13.6	59.6	16.9	9.9
	강원/제주	38	3.8	10.0	44.8	33.8	11.5
직 업	자영업	180	18.0	21.7	58.6	12.8	6.9
	화이트컬러	193	19.3	27.1	46.0	23.1	3.8
	블루컬러	70	7.0	10.3	65.3	19.9	4.4
	농림어업	43	4.3	7.4	44.1	37.0	11.5
	주 부	161	16.1	19.8	52.8	13.4	14.0
	학 생	45	4.5	12.7	52.1	16.9	18.3
	기 타	159	15.9	17.5	46.5	19.7	16.4
계 층	상 층	24	2.4	20.3	34.9	37.9	6.9
	중 간	435	43.5	21.4	55.4	13.3	10.0
	하 층	386	38.6	17.5	49.0	23.4	10.2

【 요금제 변경 통신인하 효과 】

		사례수		통신비인하 효과	효과미미	효과없음	요금인상	잘모름
		빈도	%	%	%	%	%	%
■전 체 ■		1000	100.0	10.5	31.6	22.9	22.7	12.3
연 령	20 대	176	17.6	12.7	23.0	13.5	42.0	8.8
	30 대	190	19.0	8.9	32.7	20.9	32.3	5.1
	40 대	217	21.7	7.2	35.4	31.8	19.6	6.0
	50 대	198	19.8	13.0	33.9	24.5	15.8	12.8
	60이상	219	21.9	11.0	31.6	22.0	8.1	27.3
성 별	남 성	500	50.0	9.7	28.8	25.1	24.4	12.0
	여 성	500	50.0	11.2	34.4	20.7	20.9	12.7
지 역	서울	203	20.3	11.5	26.5	23.6	29.8	8.7
	경기/인천	293	29.3	12.2	34.2	19.4	19.4	14.8
	대전/충청	104	10.4	12.1	40.8	19.8	20.7	6.6
	광주/전라	103	10.3	6.0	25.5	24.2	29.0	15.3
	부/울/경남	157	15.7	6.7	36.0	22.7	19.0	15.5
	대구/경북	102	10.2	13.6	20.2	36.3	20.4	9.4
	강원/제주	38	3.8	6.4	42.5	16.5	19.9	14.7
직 업	자영업	180	18.0	13.6	36.7	21.3	20.9	7.5
	화이트칼러	193	19.3	8.4	34.2	21.0	30.8	5.7
	블루칼러	70	7.0	17.1	29.3	27.9	18.5	7.3
	농림어업	43	4.3	7.6	20.7	47.6	12.9	11.3
	주 부	161	16.1	9.9	33.8	24.6	15.7	15.9
	학 생	45	4.5	14.3	7.9	13.3	49.6	14.9
	기 타	159	15.9	8.9	27.8	22.0	24.7	16.6
계 층	상 층	24	2.4	8.5	28.6	26.2	33.0	3.7
	중 간	435	43.5	8.3	35.4	22.9	23.3	10.1
	하 층	386	38.6	13.6	26.5	23.7	23.7	12.4

【 요금제 개선 및 추가인하 필요성 】

		사례수		추가인하 필요	향후 개선	현재 제도 만족	잘모름
		빈도	%	%	%	%	%
■전 체 ■		1000	100.0	68.9	18.1	2.7	10.2
연 령	20 대	176	17.6	72.9	20.1		7.0
	30 대	190	19.0	76.7	17.1	1.9	4.3
	40 대	217	21.7	82.1	9.3	1.5	7.1
	50 대	198	19.8	67.6	19.7	4.0	8.6
	60이상	219	21.9	47.3	24.8	5.4	22.4
성 별	남 성	500	50.0	73.1	15.9	1.7	9.2
	여 성	500	50.0	64.8	20.3	3.6	11.2
지 역	서울	203	20.3	74.9	13.8	3.2	8.0
	경기/인천	293	29.3	66.3	20.2	1.9	11.6
	대전/충청	104	10.4	73.9	16.2		9.9
	광주/전라	103	10.3	63.4	17.8	4.4	14.4
	부/울/경남	157	15.7	65.9	19.3	4.1	10.6
	대구/경북	102	10.2	70.3	20.3	3.7	5.6
	강원/제주	38	3.8	67.8	21.1		11.1
직 업	자영업	180	18.0	74.6	16.2	2.4	6.8
	화이트컬러	193	19.3	79.4	15.9	1.8	2.9
	블루컬러	70	7.0	83.0	11.8		5.1
	농림어업	43	4.3	68.0	16.6	5.3	10.0
	주 부	161	16.1	54.7	27.7	2.4	15.2
	학 생	45	4.5	81.4	3.7		14.9
	기 타	159	15.9	69.4	19.2	2.4	9.0
계 층	상 층	24	2.4	73.1	12.8	1.9	12.2
	중 간	435	43.5	74.4	17.7	2.6	5.3
	하 층	386	38.6	68.4	18.4	1.5	11.7

제 5 부 설문지

사회·경제 주요현안 국민여론조사

조사대상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여	조사기간	2015. 6. 7
조사방법	ARS 전화조사(RDD 유·무선)	표본크기	1,000표본

안녕하십니까? 우리사회의 사회현안에 대한 국민인식 여론조사를 언론사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우리리서치입니다. 질문에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며 평소 생각하고 계시는 대로 편안하게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자 특성>

SQ1. [권역] 선생님의 주민등록 거주 지역은 어디십니까?

- ① 서울 ② 경기·인천 ③ 대전·충청
 ④ 광주·전라 ⑤ 부산·울산·경남 ⑥ 대구·경북
 ⑦ 강원·제주

SQ2. [연령] 실례지만 선생님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8세 이하 ② 19세 이상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세 이상

SQ3. [성별] 선생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데이터중심요금제>

Q4. 최근 통신3사가 음성통화는 무제한 사용 가능하고 데이터의 사용량에 따라 통신비를 차등 적용하는 데이터중심 요금제를 내놓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데이터중심 요금제에 대해 알고계십니까?

- ① 잘 알고 있다
 ② 기사, 광고 등으로 대강 알고 있다
 ③ 전혀 모른다

Q5. 최근 통신3사가 데이터중심 요금제를 내놓았으나,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데이터중심 요금제로 변경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이미 변경했거나 곧 변경할 예정이다.
 ② 시장 상황을 좀 더 보고 차분히 결정할 예정이다.

- ③ 문제가 있으므로 변경할 생각이 없다.
- ④ 잘 모르겠다.

Q6. 통신3사는 데이터중심 요금제로 변경하면 요금인하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음성통화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통신비 인하 효과가 상당할 것이다.
- ② 인하 효과가 있기는 한데 미미하다.
- ③ 이전과 비교해 인하 효과가 없을 것이다.
- ④ 데이터를 많이 쓰는 추세라 오히려 요금이 인상될 우려가 있다.
- ⑤ 잘 모르겠다.

Q7. 데이터중심요금제에 대한 개선 및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개선과 추가 인하가 꼭 필요하다
- ② 향후 추이를 보고나서 개선을 추진해도 된다.
- ③ 최근의 데이터중심 요금제이면 충분하다.
- ④ 잘 모르겠다.

Q8. 선생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자영업 ② 화이트칼러 ③ 블루칼러
- ④ 농림어업 ⑤ 주부 ⑥ 학생
- ⑦ 기타

Q9. 선생님은 어느 계층에 속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층 ② 중간 ③ 하층